

대모산 숲이 좋은 길

숲의 기운과 바람의 숨결을 느끼며 걷다



걸는구간	강남 보급자리 5단지 → 대모산 능선
걸는거리	1.2km
소요시간	30분
추천시기	봄·가을
난이도	★ 초급코스

강남구 일원동과 수서동, 개포동과 자곡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모산은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 나지막하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숲을 간직하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봄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울창한 숲 아래 눈높이에 맞춰 무성하게 핀 진달래와 키 작은 조팝나무, 야생화들이 눈에 즐거움을 주고 여름에는 햇빛을 피해 시원한 그늘 밑을 걸을 수 있다. 특히 능선을 따라 길게 뻗은 오솔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흩길이라 편하게 걸을 수 있다.

대모산(大母山)이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많다. 산세가 늙은 할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할미산’ 또는 ‘대고산’(大姑山)으로 불리다가 조선 제3대 태종과 원경왕후를 모신 헌릉이 자리하면서 어명에 의해 지금의 대모산으로 불렸다 전해지기도 하고, 바로 옆의 구룡산과 함께 솟은 두 봉우리가 마치 여자의 젖가슴을 닮아 대모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다. 대모산 숲길이 짧아서 아쉬운 분들은 헌·인릉에 가보시길. 봉분 주변으로 짧지만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산책로가 있어 조용히 사색을 즐기며 걷기에 알맞은 곳이다.





대모산의 산기슭과 중턱에는 약수터와 체육시설이 있어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산 정상에서는 한강은 물론 강북 도심과 북한산, 서쪽으로 관악산과 우면산 등이 내려다보인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6번 출구로 나와서 강남03번으로 환승 후 세곡중·세명초 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공원이 보인다. 공원을 통과하면 나무계단으로 된 입구가 나온다.

☎ 02-3423-6283 강남구청 공원복지과

① 이용시간 제한 없음

식수대나 매점 없음

화장실 없음

유모차·휠체어 이용 불가능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현릉은 조선 제3대 태종과 왕비 원경왕후의 능이고, 인릉은 23대 순조와 비 순원왕후의 합장릉이다. 대모산 숲길 중간에 '현·인릉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가 나온다.

관람시간

2~5월, 9~10월 09:00~18:00 / 6~8월 09:00~18:30 / 11월~1월 09:00~17:30 *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요금

만 25세~64세 : 개인 1,000원 / 단체(10인 이상) 800원(서초구 주민은 신분증 등 제시 시 50% 할인)
 *만 6세 이하 어린이 /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외국인 무료

문의 02-445-0347

